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7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확대·심화 평가 -
- G7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10, 수) 오전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 문화·인적 교류, G7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캐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2022년 9월 한-캐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하여 역내·글로벌 안보를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한 캐나다의 향후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5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G7 의장국인 캐나다가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기여를 늘려나가고 있는 한국과 G7 간 협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끝>